

포터, 불황에도 승~

기아 봉고·GM 라보 등 자영업자 늘어 수요 급증 포터 1월 8860대 판매...쏘나타 제치고 단일차종 1위 푸드트럭 합법화 매출 신장 견인...신차 인도까지 2~3개월

경기불황이 계속되

면서 생계형 차량을 찾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현대차의 1t 트럭 포터와 기아차의 봉고, 한국GM의 다마스·라보가 대표적이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포터는 8860대가 팔려 쏘나타(6907대)를 제치고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기아차의 봉고트럭도 4982대가 팔려 판매 순위 8위에 올랐다.

포터의 경우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판매 1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가 연간 10만대를 넘긴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승용과 상용차 통틀어 쏘나타가 유일하게 국내 시장에서 10만대 넘게 팔렸을 정도다.

포터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매일 8000~8500대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며 쏘나타, 아반떼와 같은 차종들과 순위권 다툼을 해왔다. 차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정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주문해도 차량을 인도받기까지는 2~3개월 걸린다”며 “올해는 고객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생산라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터가 ‘서민의 발’이 된 지는 무려 38년이나 됐다. 1977년 HD-1000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뒤 1986년 포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1994년 9만9521대에 이어 월드컵 특수가 한창이던 2002년에도 9만5829대가 팔리며 10만대를 넘겼다.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연간 판매량이 6만대 후반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9만9453대로 다시 급증한 이후 지난해까지 9만대선을 유지하고 있다.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포터의 누적 판매량은 215만2000여대에 이른다. 2004년 2세대 포터 II가 출시된 이후 상품성 개선 이외에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도 포터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경기불황과 연결짓는 시각이다. 경기가 나쁘면 퇴직자들이 늘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포터는 주로 길거

리에서 채소나 과일을 팔거나 푸드트럭, 이삿짐 운반, 택배 등에 이용된다. 가격이 1500만원 안팎으로 큰 부담이 없어 포터를 사서 장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포터 판매 증가를 경기불황이 아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아 포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도 입을 앞두고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중량 3.5t 이상의 디젤 차량에 대해 유로6가 도입되며 내년 6월부터는 포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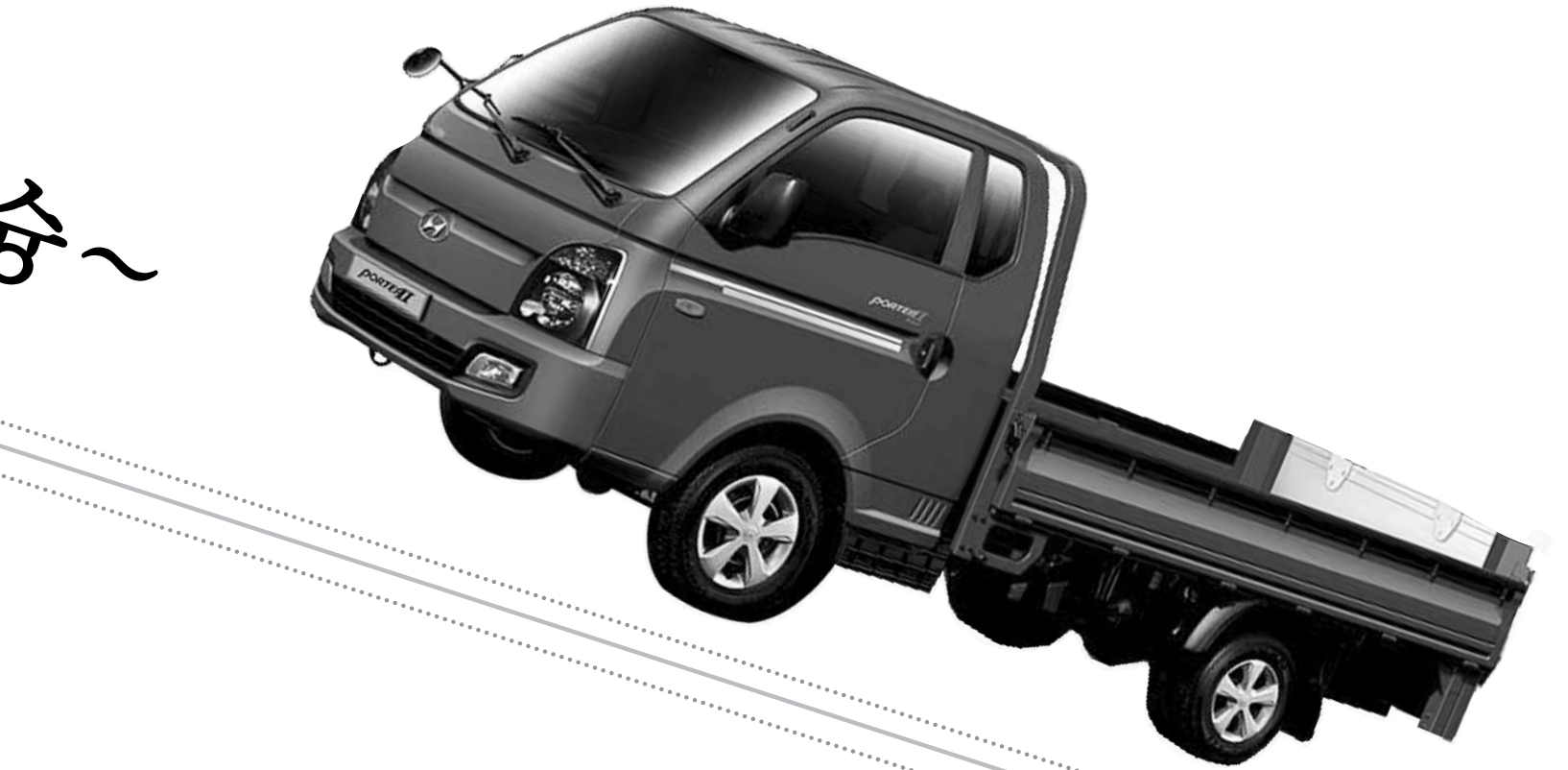
유로6가 적용되면 미세먼지(PM)는 현 규제보다 50%, 질소산화물(NOx)은 80% 이상 줄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차량에 SCR(선택적 촉매 저감장치) 등을 장착할 예정이어서 차량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점도 소형 트럭의 판매 신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GM의 다마스·라보 판매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마스와 라보는 과거 월평균 1000대 정도 팔렸으나, 지난해 8월 재출시된 이후 월 1200~1300대 정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GM에 따르면 다마스와 라보의 구매 고객의 70% 이상은 퀵서비스나 꽃, 신문, 식음료, 농수산물, 원예, 전자제품, 기계 등 물류 배달 업종 종사자들이다.

한국GM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700~9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차량은 다마스와 라보가 유일하다”면서 “800cc의 작은 배기량 덕에 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폭이 1400mm밖에 되지 않아 좁은 골목길이 많은 한국의 주택가에서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국내 점유율 ‘휘청’

수입차 공세에 60% 턱걸이

지난해 동기보다 5% 하락

현대·기아차가 승용차 시장 내수 점유율에서 60%까지 위태로운 수준으로 내몰렸다.

9월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새해 첫 달인 지난달 수입차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시장의 내수 점유율이 60.7%(현대차 31.9%·기아차 28.8%)로 푹 떨어졌다. 60%에 간신히 턱걸이 한 이같은 수치는

수입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월 평균 내수 점유율 65.04%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월간 점유율은 최저 63.1%(6월)에서 최고 66.5%(2월) 사이를 횡보했다.

현대·기아차가 새해 첫 달부터 승용차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위협받는 것은 메르세데스-벤츠가 4367대를 파는 등 단일 브랜드 사상 최초로 월간 판매 4000대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수입차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사상 최고인 18.1%로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GM이 지난달 내수에서 1만722대를 팔아 점유율 9.7%로 10%선에 바짝 근접했고, 쌍용차도 신차 티볼리 효과를 앞세워 전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 대수를 늘리며 점유율 6.2%로 선전한 것도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올해 승용차 시장에서 내수 점유율 60%를 수성하는 게 쉽지않은 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메르세

데스-벤츠, 아우디 등 일부 수입차 업체의 쌓여왔던 물량 부족이 해소되며 수입차 판매가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1월이 전통적으로 수입차가 그리 많이 팔리는 시기가 아닌 것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독일차에 밀려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국차, 일본차, 프랑스차 등 비독일계 업체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도 현대·기아차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로서는 그동안 주적이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독일계 업체로 비교적 선정했다면 1월 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미국차,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 뿐 아니라 푸조, 볼보 등 기타 유럽 업체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선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 싸움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라고 예측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차 세금감면 기준은 ‘복합연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주는 세금감면 혜택의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바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 주행에서 전기배터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달리 도심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기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55%)와 고속도로연비(45%)에 가중치를 뒤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10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존에 도심연비가 ㎥당 25.5km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km를 충족해야 한다.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도심연비 20.6

km에서 복합연비 15.8km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도심연비 16.8km에서 복합연비 14.1km로, 2000cc 이상은 도심연비 14km에서 복합연비 11.8km로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과 1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뚫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아트타운갤러리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 전시대관 접수합니다.
관장 정인 ☎062)232-7141
010-5608-187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위양식살일)
부대찌개, 찌개, 찌개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시골식당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선집, 오리로스, 생선대문양,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자 ☎062)954-1333

뚝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바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미사희 건너편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 2차프란체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무지개문화센터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코너
종목별 댄스스포츠 및 공예 수강 모집.
밸리댄스, 리본공예, 훌패션, 노래교실 등
대표 오성자 ☎062)529-1188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제휴점 이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썬크래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화 개명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